



www.csp.or.kr

사람이 NO.26 꽃보다 2013 아름다워



사진 박김형준



수원시자살예방센터
Suwon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7기 그림 (p17 참조)

Contents



편집자의 글

익숙한 풍경이 스쳐가는
익숙한 버스 안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그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주름 대신 개구쟁이의 미소가 지어졌던 때
이제는 인생의 많은 아픔을 알게 된 아줌마의 소녀 시절
욕을 화려한 형용사처럼 쓰는 학생들의 갓난아이 모습

모두 한참 전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아! 마음은 세상의 시간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다던데,
순수한 그 마음 안녕하십니까?



표지설명 사진 박김형준

동네 담벼락 틈에 핀 작은 생명에 눈길이 간다.
문득 피사체는 특별해진다. "내일 또 만나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04 theme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10 생명의 나무

조현병

12 아름다운 사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4 csp network

희망이 커지는 곳,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16 csp cafe

향초 피우는 여자

17 csp junior

위대한 생명사랑수첩의 탄생! -Made by 지킴이 17기

18 csp zone

꿈꾸는 10대를 위하여 '청소년자살예방사업'

20 review

in the movie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_영화 '카모메 식당'(2007, 일본)

in the festival

일상에 예술이 피어나다
_17th 수원화성국제연극제

24 csp 상담실

2013년 1월~5월 상담통계, 상담사례 분석

25 human city suwon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사업

26 csp news

통권 26호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발행인 안병은 발행처 수원시자살
예방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Happy 마음터 3층
/ www.csp.or.kr / TEL.(031)228-3279 기획·편집 권선영·서청희
디자인 GIO 인쇄 명조 / TEL.(031)257-8173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글 강윤경**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사회적 지지의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를 밝혀 내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자살예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 간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 여성에 대한 배타성과 비우호적 태도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위축감을 주어 정신적 병리를 양산하는데 가속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해 정신건강상 겪게 되는 위기 경험 중 가장 많은 경험은 불안과 우울이며, 이는 삶의 무력과 의미상실을 동반하여 극단적 선택인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자살생각, 자살 시도, 자살률 등의 통계적 보고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방향 설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주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행정전공 교수

** 위 글은 본 저자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본 정신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의 논문을 요약, 수정한 것임.

결혼이민여성에게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족지원체계와 사회적지원체계가 결여되었을 경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요인은 낯선 환경적응에서 야기되는 불안감, 우울, 자살생각 등의 요인에 적용해 볼 때, 정신건강의 왜해나 심리사회스트레스를 다루는데 긍정적 측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국내에서 이들의 자살관련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표면화 되어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자살생각, 자살 시도 등에 대한 연구나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스트레스의 경감 및 사회적 지지 정도와 영향력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불안이나 자살생각 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정신적 평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과 건설적인 사회를 유지함은 물론 이들의 자살 예방과 위기개입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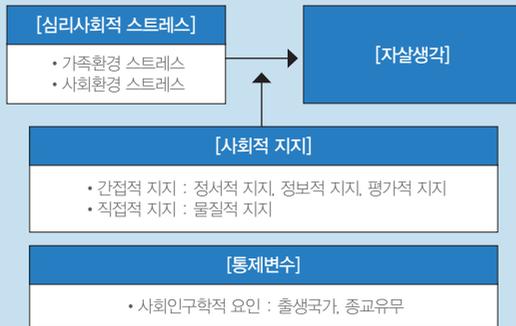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편> 공익광고



2. 연구를 위한 모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인 가족환경 스트레스와 사회환경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고자한다. 그리고, 사회적지지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1>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크게 심리사회스트레스(직업·경제적 스트레스, 이민생활 스트레스)와 가족환경스트레스(부모 스트레스, 부부 스트레스, 문화·가족갈등 스트레스)로 구분하고 각각 하위변인들과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절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는 간접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와 직접적지지(물질적지지)로 분류하고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출생국가와 종교유무에 대한 하위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3. 연구결과

위 <그림1>과 같은 변수 요인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인구사회적 배경인 출생국가 및 종교유무는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환경 스트레스인 직업·경제적 스트레스, 이민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가족환경스트레스인 부모 스트레스, 부부 스트레스, 문화·가족갈등 스트레스는 자살생각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왔으며 사회적지지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다. 이는 자살생각을 예방하는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모색과 사회적지지 개발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상호작용효과란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써 한 실험변인의 효과가 다른 실험변인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른 영향력에서 서로 관련이 없었으며 이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참고로 <그림2>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 스트레스 중 가족 스트레스요인 부부 스트레스 / 부모 스트레스 / 가족 및 문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 스트레스 중 사회 스트레스요인 직업 경제적 스트레스 / 이민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이 거의 없음



4. 나오는 말

이제까지의 내용이 본래 논문의 과다한 요약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현실 속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스스로 고민하는 문제는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스트레스 경감과 자살생각의 예방 등에 대한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방안 모색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필자는 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출생국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다문화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립 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 일선의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한 경우에서도 출생국에 따른 특성이 국내의 문화와 부딪히는 부분에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 수용 정도가 특색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자살 생각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체계망도 국가별 특성에 근거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체계망을 통해 스스로가 자살생각으로 치닫는 선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소개되지 못한 부분으로 사회적지지 중 경제적 지지를 일컫는 직접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내의 주요 자살요인이 경제문제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국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파악을 시급히 수행하여 현장에서 서비스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환경 스트레스(직업·경제적 스트레스, 이민생활 스트레스 등) 보다 가족환경스트레스(부모 스트레스, 부부 스트레스, 문화·가족갈등 스트레스 등)를 줄이는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어 이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도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중 가족환경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은 직접적 지지인 물질적 지지와 상관없이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된 자세를 갖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사정(assessment)을 진행하고 자료화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정치적인 관심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의 있는 관심과 정책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생명의 나무

조현병

'조현'이라는 말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현악기에 매여 있는 여러 줄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조율되어 있어야 조화로운 소리로 연주가 되듯 조현병은 신경계 또는 마음의 조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_이음병원

글 정성권(이음병원 정신과전문의)

조현병은 이전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2011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으로 대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내외의 유병률을 갖습니다. 100명중 한명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도 드러내어 이야기하지 않을 뿐 가족,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혹은 긴장증, 음성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존재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 되는 용어들은 매우 전문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용어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진단하는 것은 금기해야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 항공파출소 조상만 경위

항공파출소 안에는 여덟 명 정도의 경찰관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파출소 밖은 찌는듯한 더위로 모든 것이 무디어 진 것 같았지만 안은 왠지 모를 긴박감과
긴장감이 배어있었다.

글_ 권선영(홍보부)

이곳에 온 이유는 조상만 경위를 만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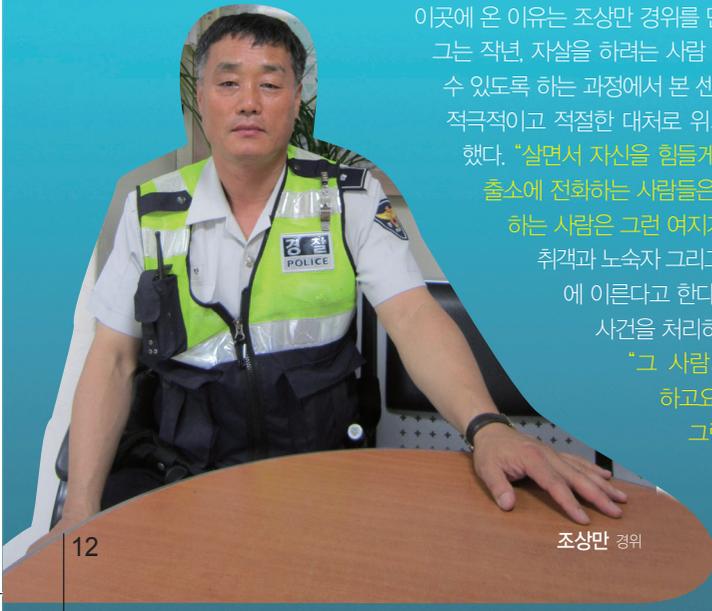
그는 작년, 자살을 하려는 사람 두 명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와 격려 등으로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인정받아 올 2월에는 도지사표창을 받기도 했다. "실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큰 변화가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출소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일 거예요, 실제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런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취객과 노숙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사건사고가 하룻밤 사이 30~40건에 이른다고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감정에 맞춰 얘기해 줍니다. 죽을 용기로 살라고도 하고요, 따뜻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는 따끔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진정을 하고 위안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소귀에 경 읽는 것 처럼 될 때도 있어요."





가시밭길 같은 험한 시간에 누군가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준다면 꼭 막힌 마음이 풀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술에 의지해 괴로워하던 사람들에게 조상만 경위는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삶을 이어주는 작은 끈이었을 것이다.

그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경찰은 시민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때로는 기막히고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어려움도 많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자 오히려 이런 질문이 돌아왔다.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을 문제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때로 서글픈 감정이 인다고 한다. 가끔 매체에 나오는 일부 경찰의 나쁜 이미지가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 외 열악한 근무환경과 3교대 근무 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기에 '로보캡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파출소에 갑자기 술에 취한 젊은이가 검은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조상만 경위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이를 제지했다. 인터뷰 할 때와 다른 단호한 모습이었다. 젊은이는 문 밖에서도 얼마간을 서성이며 안을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시비를 거는 단골이란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 역시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상만 경위의 말이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세월은 한 고개 한 고개, 매일 매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니뭇가지를 헤쳐 나가는 여정일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어떤 의미를 담는지는 걸어가는 자의 몫으로 남긴 채 말이다.

인생의 가장 험한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경찰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가는, 공기처럼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없으면 결코 안 되는 존재. 조상만 경위를 만나서 갖게 된 생각이다.





희망이 커지는 곳,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센터장

수원시는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타 지역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불리는 정신보건센터, 독립된 자살예방센터인 본 기관 역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인, 노인의 생애주기별 센터가 있으며 그 밖에 알코올, 도박중독관련 센터 등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시가 추구하는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욱 '체감'되기를 바라며 2011년 설치되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센터장을 만나 주요사업과 기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았다.

글_권선영(홍보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에는 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대상자의 문제를 완전히 소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기관 간 자원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본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서비스는 피하고 필요하지만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서비스는 개발한다. 이런 흐름에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민·관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사례관리에 있어 문제해결 중심으로 하게 되면 단기계획을 통한 현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도 뒤따르는 또 다른 문제로 대상자가 방향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다면,

“나눔은 곧 평등이라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나눔’이 필요해요. 저는 종교와 상관없이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나눔은 시혜가 아닌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때 희망이 커진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가 그 ‘함께’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점점 더 촘촘해지고 건강해지는 ‘휴먼서비스 수월’을 기대해본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주요사업

01 통합사례관리 control tower 역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시 휴먼복지지원팀의 권역별 ‘무한돌봄사례관리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주1회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민과 관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다.

02 네트워크 사업

민간 서비스 가운데 고용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나 기관의 서비스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과 MOU를 체결하여 맞춤형 서비스의 밀거름을 마련하고, 나눔 사업 아이템의 개발·실행에 관한 사업도 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고용·재능기부·종교와 관련된 단체 11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13년 주요 네트워크 사업은 수원시의 권역별 의료자원(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발굴하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고용’ 부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03 긴급지원 사업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을 한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며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요청을 시작으로 일정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04 그 밖에

긴급사례 발생 시 솔루션회의를 열어 사회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공개사례회의를 한 달에 한번 진행하여 지역의 사례관리자가 자원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사례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모금활동 캠페인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초 피우는 여자

글_한승희(지킴이 지도교사)

중학교 1학년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커녕 '자살'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그 때. 나는 한 명의 지킴이로서 피켓을 들고 수원 시내를 돌기도 하고, 행사관련 홍보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님과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연습한 연극을 보여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의 나는 내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연관 짓지 못했다. 그저 매번 새로운 경험을 즐겁게 맞이할 뿐이었다.

당시 이영문 전 센터장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지킴이들이 나중에 지도교사로서 다시 센터를 찾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때 그게 내가 될 줄 모르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까 싶었는데 대학생이 된 나는 벌써 지도교사로서 세 번째 기수와 함께하고 있다.

아름다운사람지킴이 활동을 격주 토요일마다 하는 덕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별 일 없이 보내던 주말에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것 하나,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괜히 뿌듯하고, 학교에서나 알바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둘, 그리고 동생뻘인 중학생들에게 '선생님' 소리 듣는 건 덤이다. 솔직히 지금이나 작년이나 다른 봉사자들에 비해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곤 하는데,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는 이런 부담감이나 경쟁심리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잘 해 나가고 싶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으니 늘 재미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오는 소소한 힐링이 좋다.

매 기수마다 특별한 활동을 하는데 지난 기수 지킴이는 향초를 만들었다. 자살예방센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향초와 같은 것이 아닐까. 만들어진 향초를 내버려두고 보기만 한다면 향초로써의 의미가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초에 불을 붙인다면 그 향초는 빛으로 주위를 감쌀 것이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불이 켜진 어떤 의미의 작은 향초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그 기운은 다시 그들의 주변 누군가에게 퍼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나 또한 나의 향초에 불을 지피고 싶다. 가지고 있는 향초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그 향을 맡아볼 수 없으니까. 내가 피운 향초의 향을 맡은 누군가가 그 향에 반해 다른 이를 위한 또 다른 향초를 피울 수 있도록.

우대한 생명사랑수첩의 탄생

- Made by 지킴이 17기



클_이이수(교육부)

아름다운사람을 지키는 일, 어려운 것 같다고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요?
Don't worry~ Made by '지킴이 17기 수첩'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수첩 속에는 닭장이~♪ 있을 수가 없다. 닭장 대신 지킴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다! 이름 하여 지킴이 17기표 수첩~ 한 손에 꼭 차는 환상적인 그림감, 한 자 한 자 새내려 갈수록 볼펜 잉크를 쪽쪽 빨아들이는 흡수력, 간간히 들어가는 간지에 자살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한 알찬 정보가 들어 있으니, 한 번 펼쳐보는 순간 숨은 간지를 찾는 매력에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주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일상 속 지친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담은 이 수첩! 이 수첩은 머릿속으로만 맴돌았던 그 어려운 첫 발걸음을 떼는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에너지 총만, 센스 만점인 지킴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 의견을 내고, 정리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하였으니 이 수첩엔 진부함이라곤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담 없이 읽어볼 것을 강추!!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일단 한 번 실천해 보시라! 점차 달라져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사람지킴이』와 함께 하는 용기 있는 당신을 응원한다! 



꿈꾸는 10대를 위하여

‘청소년자살예방사업’

글_오승연(상담부)

여기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는 인생시계라고 불립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시계에요.

우리의 인생을 0~80세라고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계산법은 1살을 먹을 때 마다 18분씩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5살은
새벽 4시 30분이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 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고,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자면서 충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 모르겠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거죠.

인생시계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맘껏 꿈을 꿀 시간에 와있다고 할 수 있어요.

-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틴틴교실' 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연일 쏟아지는 자살관련 소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꿈만 꾸라는 것은 어찌하면 어른들의 무책임한 외침일수도 있을 것이다. 무책임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는 2004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해 왔다. 9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며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교육청,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본 센터는 지난 4월 3일 본 센터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서 다른 사항으로는 1)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등 청소년 생명사랑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협력 2)수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자살예방 사업 홍보 3)자살위기청소년 연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사안에 따른 자살예방 업무 관련 협조이다.

이에 올해 안에 **수원 관내 중학교 1학년 청소년자살예방 전수교육**을 실시하며,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자살위기상담'과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4월부터 9차례 교육을 시행한다.

그 외 자해학생과 자살고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클리닉」, 사후자살예방사업 「잘가, 친구야」와 청소년 유친구 자조 모임 「푸른마음」이 있다.

스쿨클리닉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어린 나이에 치료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직접 학교에서 상담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

- **대상** : 자해나 자살충동성이 우려 되는 학생, 자살 목격이나 부모의 자살을 경험한 학생, 그 외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는 학생
- **방법** : (의뢰 학생 발견시)학생 의뢰서 제출
⇒ (전화 통화 후)학생 상담 및 개입

잘가, 친구야

청소년 자살 사고로 인한 주변인들의 충격과 불안을 평가하고, 자살과 상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사업

- **대상** : 학생(친구들), 학부모, 교사
- **서비스** : 교육, 개별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연계
- **방법** : 청소년 자살사고 발생 시 학교 의뢰로 이루어짐

푸른마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청소년이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상실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인 충격,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기회를 갖는 청소년 유친구 자조모임

- **대상** :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의 죽음으로 충격적인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
- **서비스** : 월 1회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방법** : 연 1회 여름캠프를 통해 기수별 대상을 모집

환경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민감한 청소년시기에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관심과 변화가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른들의 건강한 노력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かもめ食堂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_영화 '카모메 식당'(2007, 일본)

글 이영문(국립공주병원장)

얼마 전 핀란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지만 낯설지 않게 느껴진 것은 블랙 유머의 대가인 '아키 카우리스마키'감독의 영화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영화를 통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감어린 헬싱키 구석구석이 보였으니까요. 또 다른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주먹밥 하나와 커피, 시나몬롤을 정성스레 만들어 헬싱키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울 푸드(soul food) 영화 '카모메 식당'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화는 모두 슬로우 무비, 힐링 무비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날 것 그대로의 요리에 가깝지요. 굳이 소금을 치지 않아도 원재료의 맛이 살아나는 연어구이와 같은 영화를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땅 북유럽 핀란드의 항구 도시 헬싱키에 조그만 일본 음식점을 내고 살아가는 여성 사치에(고바야시 사토미 분)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음식점을 그래도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녀의 얼굴은 합기도로 단련된 단호함과 여유가 느껴

집니다. 왜 그녀가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아빠로부터 배운 것은 두 가지. 합기도와 주먹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녀를 지탱해주는 소울이며 돌아가신 아빠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또 다른 여자가 카모메 식당에 오게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헬싱키에 온 미도리(카타기리 하이리 분)는 독수리 오형제의 노래 가사를 알고 있고, 그림을 썩 잘 그립니다. 굳이 갈 곳도 없는 그녀에게 사치에의 식당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갑니다. 영화 전반부를 넘어서서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헬싱키에 도착하면서 짐을 잃어버린 마사코(모타이 마사코 분, 자기 이름으로 나옵니다)입니다. 그녀는 언어장벽 없이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집나간 남편을 원망하며 핀란드 보드카에 꿀아떨어진 이웃집 부인을 위로할 줄 압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기투합한 네 명의 여성은 카모메 식당의 좌석을 꽉 메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집나간 남편이 돌아온 것도 그 기적에 포함이 되지요. 이런 느닷없는 해피엔딩은 정확히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영화와 닮아 있습니다. 왜 식당이 잘 되었는지, 핀란드 할머니들이 왜 몰려다니며 수군거리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각자 적당히 위로받고 회복되면서 기적을 함께 누리는 행운을 경

험할 뿐입니다. 상징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는 이 영화에서 정중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오코 감독은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왜 하필 핀란드까지 가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들의 캐릭터가 헬싱키 부두의 통통한 핀란드 갈매기와 닮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핀란드 갈매기는 '카모메 식당'의 여주인공 사치에의 어린 시절 고양이와 닮아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 세 명의 일본 여성과 한 명의 핀란드 여성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이 영화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사치에의 기억으로 시작해서 부두의 핀란드 노인의 고양이를 거쳐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마사코의 팔에 안기는 고양이까지 정확히 다섯 차례 컷에 등장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고양이는 바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마사코가 핀란드 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고양이는 그녀의 앞으로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헬싱키에 살아갈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셈이지요. 사람은 모두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가르쳐 줍니다.

이번 여행 동안 짧게 둘러본 헬싱키는 이 영화에 그려진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인업고 달리기' 하는 것이나 '사우나 오래 참기' 같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일상의 평범함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항구 귀퉁이에 서있는 대통령 집무실,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500만명의 적은 인구지만 전문가 내부의 거침없는 협력과 화합의 모습들은 영화 속 여유로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유로움은 핀란드의 숲에서 온다고 영화는 얘기합니다.

자연환경으로 인한 자살률이 매우 높았던 곳에서 이제 자살예방의 교과서라 불리는 성과를 내기까지 핀란드 사람들의 노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을 지탱하는 힘은 핀란드의 숲과 호수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REVIEW ARTIST & LOCAL ORGANIZATION
in the festival

일상에 예술이 피어나다

17th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개막식 이모저모



글 · 사진 권선영(홍보부) / 편집 백유선



한바탕 난장을 벌여 보자~



개막 전 국악 공연. 진도 아리랑, 장타령이 시원스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기분마저 좋아진다. 달링타임~



염태영 수원시장 출연



Edith Piaf 개막작 「사랑의 찬가」
"대단한 날 사랑한다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겠어요."
"사랑의 찬가"





화성 사대문을 모티브로 만든 모형물. 안에 작은 벤치가 있다.



시민이 주인공인 무대~ 우주복과 중세시대 드레스의 만남. 이상한 나라의 로미오 & 줄리엣



칙칙포목목 칙 chic pok pok

무대 위에도 무대 아래에도 이오키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 오늘도 가득하다.



기막힌 예술품!
스키로 만든 혼들이자~



공룡이다!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잠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당극 품바품바~



동상인가 사람인가



숲 속에서
관객이 빛 앞에 설 때마다 동물 탈 형상이 생긴다. 얼굴이 부영이가
되기도 하고 사슴, 어우가 되기도 하는 신비한 경향



시민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기원해주는 각성어들~
관객과 하나 되는 무대가 흥글하다.



상담 사례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잘못된 길이었지만,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어 지금은 무직이지만 집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빠였고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될까 겁이 납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 터놓고 이야기 하고 싶은 상대를 찾을 수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 하나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설마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가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한 사람으로 내 가족들을 지킬 힘이 없어진 지금 무엇보다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는 비가 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침입니다.

주신 글을 읽으며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의 마음이 느껴져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좋은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상황이 더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듯합니다.

지금 님이 처해 계신 상황이 분명 사랑하는 가족에게 충격을 주고, 스스로에게도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보는 일도 그럴 것이고 처벌의 과정들 역시 피하고 싶은 커다란 스트레스임이 사실입니다.

님,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역시 그 당시에도 어떤 가능성들 중에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이 고려하시는 도피의 방법 중에는 지금까지의 옳고, 행복하고, 소중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나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될 수 있고, 남게선 어떤 변명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긴 세월 동안 님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서로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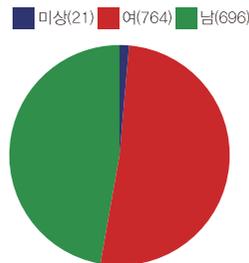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정직함과 도망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님이 잘못하신 과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미래의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기하게 되실 것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가족은 좋고 즐거운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픔도 잘못도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삶 자체를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조금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이없이 힘든 상황을 만나도 삶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이 가족에게는 더욱 멋지고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부디 인생의 한 부분을 실패했다고 소중한 것 전체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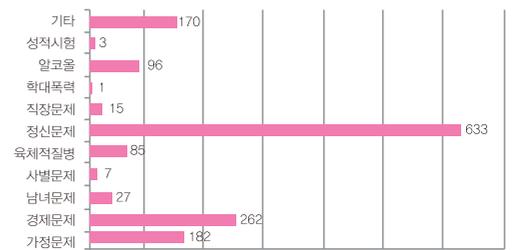
월별상담건수



성별구분



자살관련 문제유형



※2013년 1월~5월 상담 통계 (1,481건)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사업

자료제공_김윤희(권선구보건소 지역보건팀)

대상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개안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분 (기초생활수급권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지원대상 질환

-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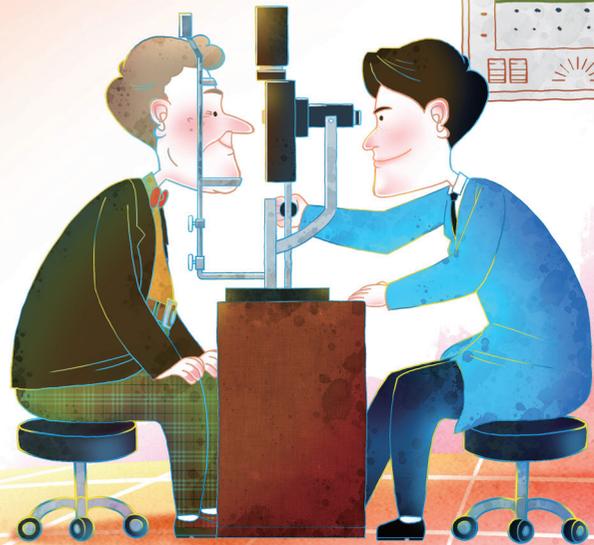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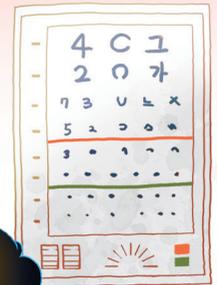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
- 지원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노인개안수술지원 신청서)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문의사항

권선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228-6797

※유의사항 : 개안수술비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한 수술 또는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토리 가족자원봉사단 소양교육

2월 16일 본 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에게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봉사활동을 하는 '의토리 가족자원봉사단'의 소양교육이 있었다. 부모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은 이날 여덟 팀 17명이 참석해 봉사 내용에 관한 설명과 의사소통 훈련, '나의 존재 찾기' 프로그램으로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자살예방 위기상담원 모집교육



매년 2월에 이루어지는 '자살예방 위기상담원 모집교육'이 올해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선구보건소에서 진행되었다.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자살과 정신과적 질환', '자살 예방 상담과 위기개입', '한국사회의 자살과 가족 그리고 가족주의' 등 상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더불어 자살과 관련된

다각적인 내용을 다뤄 예비상담원들의 자살예방상담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아름다운사람지킴이 매뉴얼 제작

2005년 시작된 1기부터 16기까지의 활동을 담은 '아름다운사람지킴이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기수별 프로젝트 내용과 사진, 실제 사용한 다양한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각 장의 제목을 살펴보면, 1장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이해', 2장 '아름다운사람지킴이 프로그램', 3장 '아름다운사람지킴이 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4장 '기수별 활동'이다. 매뉴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사람지킴이로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3 휴먼시티 건강박람회

수원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건강박람회가 5월 25일 만석공원에서 열렸다. 이 날 제2야의 음악당 마당에는 여러 관련기관에서 준비한 부스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본 센터는 세대별 건강체험관 가운데 '아동·청소년관'에서 '희망나무', '자살예방 OX퀴즈',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7기도 함께 하였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길로 뜻 깊은 행사였다.





자살유가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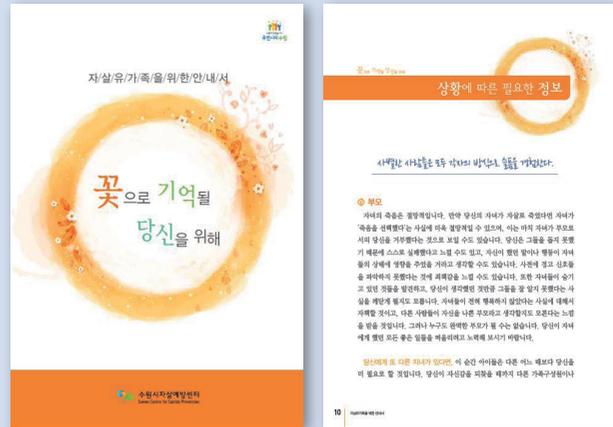
본 센터는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www.csp.or.kr) '자살유가족' 이용 안내

자살유가족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 **그리운 사람에게**
떠난 이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추모 게시판(공개/비공개)
- **마음을 나누다**
다른 자살유가족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자유게시판
- **자료실**
자살유가족분들이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소개
- **상담실**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상담 운영

※자살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꽃으로 기억될 당신을 위해」



자살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슬픔과 애도, 상황에 따른 필요한 정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등-가 담겨있다. 유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주 모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유친구 자조모임 '푸른마음' 2기 모집

죽음으로 인한 상실로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래 집단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8월에 시작된 유친구 자조모임 '푸른마음'은 1년간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 8월에는 캠프를 통한 2기 모임이 시작된다. (캠프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성인유가족 모임

올해 4월부터 성인 자살유가족 모임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을 모임에서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건강한 애도과정과 회복을 돕는 모임에 자살유가족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문의: 031-228(247)-3279



수원시자살예방센터
Suwon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지 17 Happy 마음터 3층
TEL. 031-228-3279 FAX. 031-258-3279 www.csp.or.kr



사람이 만감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수원시권선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